

세계를 보고 우리를 점검한다

- 세계의 양육현황 연재, 금번호 북미엘크 편 -

국내 양육업은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 녹용소비의 80%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 잠재되어 있다. 국내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의해 녹용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요증가는 국내 양육업의 양적 성장도 수반하게 되어 짧은 상업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25만두의 사슴이 1만 5천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어 기존의 축산업을 대표하는 축종들의 대체 축산으로서 각광 받을 만큼 산업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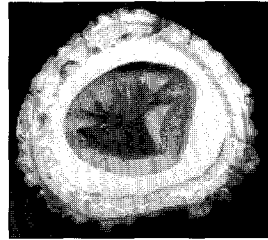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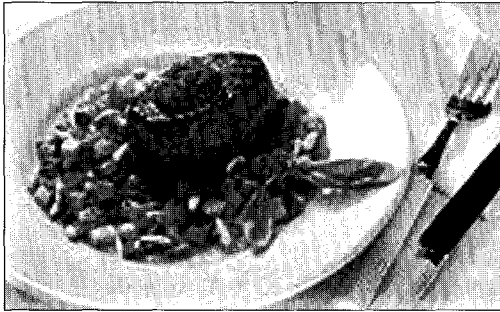
지금까지 녹용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어 소비가 극히 저조했던 외국의 경우에도 녹용의 활성효능에 대한 현실적 임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녹용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슴의 사육두수는 총 400여 만두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북미지역의 사슴사육은 매년 약 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녹용의 생산 공급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육업은 경제성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배

양하기 위해 양육업의 산업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야 할 상황이나, WTO 체계의 확립 후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국산 저가 녹용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아직까지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양육업계는 산업적 기반이 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내 사슴과 녹용시장의 형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단계 시야를 넓혀 우물 안의 개구리의 눈보다는 하늘 높이 나는 매와 같은 넓은 시야로 바라봄으로써 바로 앞의 위기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위기극복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필자는 지난해 캐나다의 벤프에서 열린 국제녹용과학기술 심포지엄(ASPT)에 참가하여 같은 녹용을 가지고도 외국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한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례로 우리는 녹용을 주로 엑기스와 같이 추출하는 방식과 절편녹용으로 주로 소비하는 반면 외국은 녹용을 분쇄하여 캡슐로 상품화하였고 녹혈도 마찬가지로 건조분말화하여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조 식품뿐만 아니라 비스킷이나 애완동물의 사료에도 녹용을 첨가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시판되고 있었



다. 또한 외국은 사슴고기의 소비도 활발하여 그에 따른 요리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다양한 사슴육의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특히 캐나다의 사슴농장을 방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병으로 한국인은 절대로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큰 낭패를 본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방역에 대한 철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많은 부분 같은 녹용을 두고 서로 상이한 시각차이나 그들의 양육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그리고 협회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양육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한다.

이미 외국과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나라의 양육인들을 위해 세계양육업계의 흐름과 경쟁상대국의 생각과 그들의 양육성격을 조명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북미엘크협회(The North American Elk Breeders Association, or NAEBA)와 각주의 양육소식과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 세계양육

등 세계 양육산업에 대해 탐방형태로 매월 시리즈로 연재하려고 한다.

이번호는 제일 먼저 북미엘크협회(The North American Elk Breeders Association)라 불리는 NAEBA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한국양육협회가 있듯이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들의 연합 단체인 The North American Elk Breeders Association(북미엘크협회), 또는 짧게 NAEBA(내바)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다. 북미에는 꽃사슴이 사육되지 않는 관계로 주로 엘크를 사육하기 때문에 이들의 양육산업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이다.

NAEBA(내바)의 주요한 목표는 회원들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다각적으로 양육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 기회와 이익창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한다. NAEBA(내바)는 연방 당

며 회원들의 근황과 양육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격월(2달에 1번)간 전면칼라 협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과 번식에 관련된 교육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NAEBA(내바)는 해마다 늦겨울에 대규모 모전체 모임을 개최한다. 이 모임은 회원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관심사를 대화하고 최신의 사슴의 건강과 경영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회원들 외에 양육산업에 관계되거나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NAEBA는 35명의 회원들과 함께 1990년에 출발했다. 그러나 Ontario(온타리오)의 Toronto(토론토)에서 2001년 모임 때에는 1802명으로 착실하게 증가하였다. 회원 자격에 대하여 지원자들은 스스로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하고 협회의 규칙들을 준수할 것을



NORTH AMERICAN ELK BREEDERS ASSOCIATION

국을 상대로 양육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 동물 건강 연합에 동등한 자격으로 연방 농장 사무소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서로 추구한다.

The North American Elk Breeders Association(북미엘크협회)은 많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준다. 순종 엘크를 등록 받아 잘 유지시키고, 양육산업에 관련된 모든 방면의 주소 및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으

동의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사슴농장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NAEBA(내바)의 활동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자신의 사슴을 소유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멤버는 그 외에도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앞으로 사슴농장의 경영을 하려는 새로운 농가들을 장려하기 위해 NAEBA는 18살 이하의 청소년 회원들을 위

해 25달러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회원들은 사슴등록이나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잡지들과 다른 출판물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미엘크협회(The North American Elk Breeders Association)도 한국양육협회와 같이 국내 양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

정부 활동과 양육경영과 사양 그리고 질병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농민 생산자 단체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는 많은 양육단체들이 그들 지역의 양육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마다 지회가 있듯이 이들 북미엘크협회의 큰 테두리 안에 지역마다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잠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지역**

▶ 미국지역 단체

아칸소 주 엘크 농가협회
일리노이스 엘크 생산자협회
캔자스 엘크 협회
협회 미네소타 엘크협회
네브라스카 엘크 협회
노스다코타 엘크 재배사 연합
남다코타 엘크협회
북동 사슴과 엘크 농가협회

콜로라도 엘크 협회
인디애나주 엘크 협회
마인 사슴과 엘크 농가협회
미조리 엘크 농가협회
노하이오 엘크협회(주)
오리곤 엘크 협회
남부 엘크 협회
유타 엘크 협회

아이다호 엘크 협회
아이오아주 엘크 협회
미시칸 사슴과 엘크 농가
몬타나 가축 생산자협회
뉴멕시코 엘크 생산자협회
펜실베이니아엘크협회(주)
테네시 엘크 협회
위스컨신 상업방송 사슴과
엘크 농가협회

▶ 캐나다지역 단체

알버타 엘크 협회
온타리오 엘크 협회
온타리오 사슴과 엘크 농가협회

큰사슴 듀큐백 에레버스협회
유콘 게임 재배사 협회

마니토바 엘크 재배사 협회
사스카체완 엘크 협회

☛ 다음 호에는 북미의 양육산업과 CWD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권영재 기자〉